

'천년의 소리' 다시 울린 서라벌의 가을

에밀레종 9년만에 한글날 시험타종



○9일 오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이 9년만에 타종됐다. 신종(神鐘)을 듣기 위해 1천여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았다.

몇 번 들어봤지만 실제 종소리를 듣기는 처음'이라며 '이 소리가 1230년 전 울리면 그 소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온 정시마(36·울산시 아음동) 씨는 '종소리가 가슴을 때리는 느낌이였다'며 '역시 종은 늘 울려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앙무형문화재 27호 승무 기능보유자인 이에 주(서울대) 교수는 타종에 맞춰, 신종을 만들 때 희생됐다는 전설 속의 어린아이를 위한 살풀이 춤을 30여 분 동안 추었다. 원래 이날 타종은 신종을 칠 때의 진동과 음향 신호를 분석해 현재 종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종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신라 해공왕 7년(771)에 조성된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1992년까지

때때 제야의 종으로 타종했으나 보존관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돼 1993년부터 타종이 중단됐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에 걸친 안전진단 끝에 1999년 문화재위원회가 타종 결정을 내렸다. 내년부터는 개천절인 10월 3일에 타종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예전처럼 축한기인 12월 31일에 종을 치는 것은 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종일을 10월 3일로 잡았다. 박물관은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비천상을 4분의 1로 축소한 모형 탁본 뜨기, 성덕대왕신종 시스템 찍기, 다도 실습 등을 결미해 타종 행사를 '서라벌 문화체험 한마당'으로 꾸렸다. 박영복 박물관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범종이요 세계적인 문화재인 성덕대왕신종의 타종은 학술자료의 확보는 물론, 온 국민이 신종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경주 분황사에서는 화쟁 사상을 통해 여러 종파의 사상을 통합하고 일상 생활 속에 살아 있는 불교를 만들려 했던 원효 스님과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제6회 원효 예술제가 열렸다. '원효 스님의 가르침은 새천년의 빛'을 주제로 열린 예술제에서는 거리낌없는 노래와 춤으로 대중 보살도를 실천했던 원효의 무애가무행(無礙歌舞行)을 오늘날의 의미로 되살린 시와 노래, 음악과 춤, 극, 국 등으로 표현했다. 창작 무애무공연을 비롯해 부산 남산놀이마당의 풍물과 불국사 선재어린이합창단의 노래 공연, 대금산조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글=권형진 기자 jm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jo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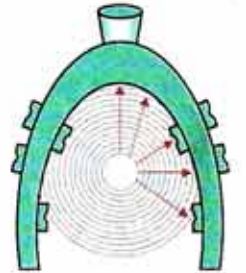
신비한 종소리의 비밀

진동수 차이나는 맥놀이 현상 동근 종소리 1분이상 수축→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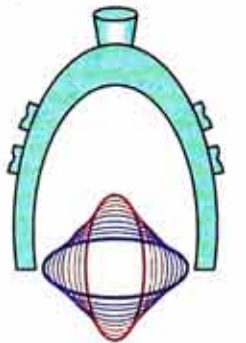
긴 여운, 그윽한 소리, 신비의 종소리로 유명한 성덕대왕신종. 이날 타종식을 지켜본 국립경주박물관 박영복 관장은 '중국과 일본의 종소리도 많이 들어 봤지만 성덕대왕신종만큼 웅장하면서도 맑고, 심중을 울리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소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신비로운 종소리의 비밀은 바로 '맥놀이 현상'에 있다. 맥놀이 현상이란 은은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의 여운이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주파수 차이가 근소한 2개의 파동이 서로 간섭하면서 진폭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합성파를 만드는 현상. 신종을 칠 때 소리의 여운이 1분 이상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맥놀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종을 만들 때 재질이나 종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종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지 않아 진동수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다. 진동수 경희대 교수는 1996년 '성덕대왕신종 국제학술회의'에서 신종 상부에 만들어진 36개의 연꽃형 돌기와 내면 상부의 커다란 사발모양 돌기(범종)가 맑은 종소리를 내기 위한 고도의 정교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인종의 사발모양 돌기가 종을 비대칭으로 만들어 맥놀이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내부에 쇠 찌꺼기같은 딱지떡이 붙어 있는 것 역시 '이 쇠 찌꺼기로 종의 비대칭성의 폭을 확대해 맥놀이 현상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배명진(숭실대) 교수는 최근 '신종 아래 부분의 오



○종 안에 있는 범종 등 '비대칭성'이 맥놀이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타종시 종의 아랫부분에서 발생하는 동근 소리가 수축·확산을 반복하면서 맥놀이로 이어진다는 것이 배명진 교수의 주장이다.



○타종에 이은 서라벌 문화체험 한마당에서 관람객들이 신종에 새겨진 비천상 모형의 탁본을 뜨고 있다.



○신종이 울릴때의 진동과 음향신호를 분석해 현재 종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구적인 보존을 마련할 계획이다.



○29회 신라 문화제 기간(9-10일)인 9일 경주 분황사에서는 제6회 원효예술제가 열렸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선식을 하자

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대 고승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즐겨 먹어온 선식(禪食)이야말로 왕도종의 왕도이다. 누구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결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식은, 수행하는 불자들에게 일석삼조이다. 또 선식의 효과는 누구에게나 정직하다. 누구든지 실천하는 만큼, 남녀노

몸청정 마음청정

소,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그 결실이 주어진다. 그 실천의 덕목은 의외로 간단하다. 적게 먹고, 때 아닌 때에 먹지 않으며,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 한 예로, 봄에는 생물의 기운이 어린 새싹에 모이고, 여름에는 즐기나 꽃으로 모이며, 가을에는 열매로, 겨울에는 뿌리 쪽으로 기운이 모인다. 그래서 봄의 나물, 여름의 즐기 채소와 꽃, 가을의 과일과 씨앗, 겨울의 뿌리 채소가 선식의 주재료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 재료는 모두 선식의 '몸'에 해당하는 죽식(粥食)과, 선식의 '정신'

에 해당하는 차(茶)로 활용되었다. 또한, 선식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마음을 비우게 하는 것이 선식이며, 마음을 비울수록 실천에 옮기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식(小食)이 강조되고 느긋하게 천천히 씹어가며 섭취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인간사의 곁을 흐르는 그 근본이 먹는 것에 있다. 음식을 조절해야 비로소 마음의 뿌리를 관할 수 있는 법이다. 아무리 뛰어나도 눈과 머리로만 판단대장경의 깊은 뜻을 관통할 수 없다. 오직 여진 마음으로만 꿰뚫을 수 있는 법인데 그만큼 마

음을 다스리는 선식은 불자들에게 의미가 깊다. 평생 먹는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의 향기를 규정한다. 미려한 선식으로 모든 불자들의 향기가 맑고 청정해지고, 온 세상이 청정해지길 기원해본다.

어느덧 선식 기행을 연재한 지도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 찾지만 장수의 비결 눈앞에 있는 줄 모른다네.
나는 아주 간단한 도리 터득해 죽으로 신선이 되고 가게 한다네.
(끝)